

장미

임보연(시인)

어김없이 담장에 걸터앉은
매혹적인 그녀
연두색 스카프를 걸치고
긴 목 내밀어
세상을 엿듣는다

바람도 그녀 앞에선
어찌지 못해
그녀의 향기를 몰고 다닌다

시들어도 고귀한 자태여!
담장 밑에 똑똑 떨어진 핏빛
오월이면
그녀의 울음 사방에 흥건하다

때가 되면 변함없이 담장에 걸터앉아 세상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본다. 긴 목을 내밀면 시원스러움에 바람도 찢찢매며 그녀의 향기라도 몰고 다녀야 한다.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는 시들어도 어쩔 수가 없나보다. 똑똑 떨어진 빨간 꽃잎, 울음이 흥건하게 고인다고 했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왜 꽃이 이처럼 다양하게 이용되는 걸까, 자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로 대신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꽃으로 마음을 대신하여 줄 대상이 있음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꽃이라면 우선 떠올리는 것이 장미다. 사랑을 고백할 때도 생일 선물에도 장미꽃이라면 항상 여심(女心)은 쉽게 녹아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향기와 핏빛 오월이기에 바람은 몰고 다녔고 사방에 울음이 흥건할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면 꼭 장미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배어 있다.

솔밭 공원을 거닐며

배 성 희(수필가)

산림욕하기에 정적인 시간을 이용해 손자를 데리고 우이동 솔밭공원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선다. 오전 6시에서 낮 12시 하루 중 나무들이 가장 왕성하게 피톤치드(phytoncide)성분을 뿜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 볼에 아토피가 있는 손자에게나 선천적으로 피부가 연약한 나의 체질을 위해 솔밭공원은 고마운 산책로이다.

아침 운동을 하기위해 나온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베드민트를 치는 사람들과운동기구 앞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주인을 따라 산책 나온 귀여운 강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도 있다. 보랏빛이 고운 맥문동 옆을 지나면서 손자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

“이 보라빛 꽃은 우리의 나라꽃인 무궁화라는 꽃이란다. 다른 꽃보다 일찍 피고 일찍 지면서 다음날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세속적인 행복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하며 인생에 비유하여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의 절정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꽃이란다.

그리고 이것은 버들강아지야. 할머니가 어릴 때 손바닥에 침을 올려놓고 강아지를 부르듯 가지고 놀던 꽃 이란다. 보들보들한 촉감으로 친절이라는 꽃말도 있단다. 너도 내년이면 손바닥위에 이 버들강아지를 올려놓고 놀겠지. 만져 보지 않으련?

그리고 이 귀엽고 작은 꽃은 순결한 사랑이라는 꽃말과 잘 어울리는 패랭이꽃이라고 하지. 꽃들에겐 이와 같은 꽃말들이 전해지고 있단다.

그리고 어디선가 향긋한 향기도 날아오지 않니? 바로 옥잠화라는 우윳빛의 하얀색 꽃에서 풍기는 향기란다. 그 향기들을 쫓아 나비도 날아들고 벌도 날아오지 이렇게 꽃에게도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단다. 우리 규을이는 자라서 어떤 향기를 피우게 될까? 공원에서 처음 보았던 맥문동꽃말이 겸손과 인내로 기쁨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는 할머니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는 맥문동 꽃말 같구나.”

유모차 타기를 싫어하는 10개월 어린 손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작은 속삭임이 좋은 냥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람들과 익숙해진 청솔모 한마리가 나무 가지에서 쪼르륵 내려온다. 공원의 산책로 한편에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바위고개 동요가 적혀있는 기념비도 있고 작곡가 윤극영 선생의 반달의 기념비도 있다. 보여줄 것이 너무도 많은데 손자는 어느 사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이 들었다.

잠든 손자의 볼에 가벼운 뽀뽀를 하고 벤치에 앉아 인수봉이 보이는 백운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묵주를 손아귀에 쥐다. 한 생명의 축복받은 탄생으로 인해 삶의 재충전은 시작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생각을 깊게 한다. 56의 나이에 할머니란 메달은 받았건만 그 메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지 무심코 튀어 나오는 손자사랑에 옆구리를 툭 치는 친구가 있었다.

“누가 너더러 할머니라 그러겠니? 늦둥이라고 말해”

유모차를 끌고 다니자 더러는 늦둥이냐고 묻기도 하지만 외손자라고 대답하는 나의 활기찬 모습은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마다 부세의 ‘행복’ 시를 애송하던 날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이 작고 예쁜 아이를 통해 내게 온 것이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사람 꽃이라 했다.

공원 벤치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아름다운 사람 꽃으로 흐려졌던 초점이 반짝일 때가 있다. 공원 광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행동을 늘 주시하고 있는 그분들의 눈에는 아이들은 무대 위의 피에로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 굳게 다문 입에 미소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득 직장에서 내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을 안을 때 마다 그 아이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끼던 시절이 생각한다. 그 아이들과의 생활이 행복해 현관 입구에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란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한 구절을 써 붙였던 기억이 새롭다.

예수님도 아이가 자기 곁에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든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인색하게 꼭 쥐고 있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한 생명의 탄생으로 붓물처럼 터져버린 감사란 단어. 그 아름다운 명사가 가져다주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귀한 생명으로 날마다 실감케 하고 있으니 아가야! 너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참 행복하단다.

뚝뚝 떨어진 빨간 꽃잎, 울음이 흥건하게 고인다고 했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왜 꽃이 이처럼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로 대신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꽃으로 마음을 대신하여 줄 대상이 있음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